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基虎

編輯人兼 韓一

主 幹 韓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위대하신 선조님 바로알기-그 뿌리를 찾아서

- 1) 시조묘·세일재-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
- 2) 淸韓閣(탄강지)-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227-7
- 3) 각파 종중의 내력 알기



시조 태위왕공(諱·蘭)영정



시조묘(사진 상) 및 세일재 전경(사진 하)

<촬영: 元敎>



시조 탄강지 정문

基虎 中央宗親會長은 취임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종친회의 중요한 일종의 하나로 시조묘 참배하기·시조 탄강지인 淸韓閣 방문하기·각파 종중의 내력 알기 캠페인을 2015년 말까지 전개기로 했다..

첫회로 시조부군에 대하여 淸州韓氏 유사보감을 참고로 전제한다. 淸州韓氏의 유래는 후조선인 箕子朝鮮에서 기원한다. 마한(馬韓) 원왕(元王)의 아들 3인이 있어 우평(友平)·우량(友諫)·우성(友誠)이니 나라가 쇠하자 우평은 고구려에 입사(入仕)하여 북원선우씨가 되고 우량은 신라에 입사하여 상당한 씨 즉 淸州韓氏가 되었고 우성은 백제에 입사하여 덕양기씨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씨는 모두 箕子의 後裔가 되는것이다. 箕子는 은나라의 종실로서 주왕(紂王)의 숙부가 된다. 주왕이 잔인하고 포악하여 국정이 쇠퇴함으로 주나라 무왕(武王)이 이를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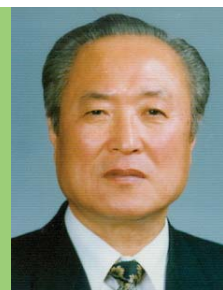
멸하고 기자에게 치국하는 대도를 청문하기에 홍범을 자문하여주고 고조선에 亡命하였는데 때마침 檀君 조선이 종말을 고하게 되자, 후조선을 건국하고 예의군자국이 되었다고 한다. 淸州韓氏 시조 한 란은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탄생하여 향학을 일으키고 청주 방정리에 무농정을 세우고 농업을 권장하여 부농을 이루었는데 이 때에 王建이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워 개국공신이 되었으니 벼슬은 삼중대광태위(三重大匡太尉)라는 최고의 관작을 하사받으셨다. 또한 고려가 삼한공신들에게 토성의 관향(貫鄉)을 나누어 정해줄때 청주를 관향으로 삼도록하여 이때부터 淸州韓氏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 시대의 師表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서세(逝世)하시자 지금의 충청북도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조정에서 생전에 위업을 기려 위양(威襄)이라는 시

호(諡號)를 내렸다.

공의 후광에 힘입어 후손들 가운데 충의를 실천한 군자는 물론이고 학문이 높은 홍유석학(鴻儒碩學)과 나라의 동량(棟梁)이된 고관대작들이 무수히 나왔고 朝鮮朝에는 여섯분의 왕비를 배출하여 淸州韓氏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화문갑족(華門甲族)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위대하신 선조님을 둔 후손으로서 마땅히 참배하는 것이 도리일진대 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홀한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자라나는 後孫들에게 산교육의 현장인 시조묘와 誕降地를 방문 설명해주어 명문 거족의 後孫으로서 自負心과 矜持를 갖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물로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겠다.

다음호 정보부터 각파 종중의 내력 알기를 각문중의 협조를 받아 시리즈로 연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淸州韓門은 單一本으로 萬枝同根임을 잊지 맙시다.
- 만 가지가 뻗었어도 뿌리는 하나



제25대
中央宗親會長
韓基虎 배상

2015년도 제1차 회장단 회의

2015년 7월 8일 · 중앙종친회 회의실

중앙종친회(회장 基虎)는 지난 7월 8일 11시 中央宗親會 會議室에서 현수 전임종친회장 · 선교 충성공파회장 · 추태 정혜공파회장 · 신석 질경공파 회장 · 광수 서울시회장 · 기천 인천시회장 · 갑수 대전시회장 · 명수 강원도회장 · 광전 경기도종친회장 · 동석 삼재 관리위원장등 20여명의 시도회장과 종파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인 상무의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순으로 진행했다.

基虎중앙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notwithstanding 宗親會와 한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 봉사할 것임을 다짐했다. 會長團인 종파대표와 지역회장님들은 같은 배를 탄 共同運命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共生 · 共存 · 共榮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며 늘 肯定的인 마인드로 즐겁게 생활하며 會



제1차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하는 基虎 중앙종친회 회장

長團 여러분과 모든 일가분의 가정에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인사를 마무리 했다. 현수 전 中央宗親會長은 축

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사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基虎 회장을 중심으로 종사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축하의 인사를 했다.

駿錫 사숙공회장은 淸韓閣 설립 비사를 들려주며 힘을 모아 나가자고 인사하며 신임 광수 서울시종친회장을 소개하며 중앙종친회에도 도움이 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종인 상무는 경과보고를 통해 기호 회장님 선출 정기총회이후 오늘 회장단 회의까지 종사 중요사항을 보고했다.

附議案件은 1. 중앙종친회 주요현안 2. 제7교 대동족보 편찬사업 3. (재)청한 장학회 현황 4. 종사발전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청한연구회 기구설립 나)시조부군 안내 팸플렛 제작및 비치 다)종보 편집시 시조및 중시조 소개 라)운영위원회는 종파하위지파 회장으로 선임 마)종친회조직 확충을 위하여 여성회와 해외종친회 활성화건은 의결을 하고 여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意見交換을 가진 후 오후 1시 30분 閉會를 했다.

회장단 회의 주요 내용

1. 중앙종친회 주요현안

가)제 25기 임원 선임

-임원 선임 기준

- 고문:전임 회장(상임 고문)
- 자문위원:상위 종중회장 전직 부회장 및 감사등
- 부회장:중시조 종파회장 광역시도회장
- 운영위원:지파회장 시군구회장
- 이사 :종파및 시도회장 추천일자 - 3~5명

나)임시총회 개최검토

-시기:추후 확정

-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추경 예산에 관한 사항(운영경비 확충 방안)
- 제7교 대동족보 편찬에 관한 사항
- 장학기금 확충방안
- 기타 종사 운영및 발전을 위한 방안

다)종중 토지및 자산 현황

-가산리 23필지 65,494㎡, 신송리 1,837㎡, 난곡리 3,173㎡ 합계 70,504㎡ 약 21,327평
-서울: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816호

2. 제 7교 대동족보 편찬사업

가)족보 편찬 400주년 기념행사

-시기: 2017년도 1/4 분기 중

-방법: 축하행사, 중앙회 다른 행사와 병행 개최

나) 제7교 대동족보 편찬사업

-편찬사업: 족보편찬 400주년 기념행사 이전으로 계획

-추진일정 (안) 수립:세부일정은 추후 결정

- 족보 편찬 위원회 조직구성

- 세부 추진일정및 활동 계획수립

- 인터넷족보 편집 본

- 편집 본 최종

- 인쇄및 제본 완료

- 발송및 반질

- 결산(감사 · 총회)및 조직해산

다) 인터넷 대동족보 구축 계속사업

- 문중별 입보 현황 : 생략

- 대동족보 편찬 및 발간연혁 : 생략

3. 인터넷 대동족보

-추진경과

- 2004년

1월:한글인터넷 족보 편찬발의(회장단 회의)

2월:정기총회에서 결의

4월: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 창립총회

5월:사무실 개소 본격적인 사업 추진

-추진 목적 및 효과

-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응

- 인터넷을 활용한 최첨단 대동족보 구축

-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여 제7교 대동족보 편찬의 근간자료

-향후추진과제

- 미입보된 청주한문의 입보독려

- 상세편의 선대 계대및 유사 정리

- 자손록 정리

4.(재)청한 장학회 업무

가) 기본현황

- 최초설립: 1999년 10월, 기본재산 3억원

- 현재 기본재산: 28억 3 천만원

- 장학금 지급실적

• 대학원생 : 28명 4,200만원

• 대학생 : 558명 6억 9,850만원

• 고등학 : 254명 1억 2,700만원

• 계 : 840명 8억 6,750만원

- 임원현황

• 이사 : 25명(이사장 포함)

• 감사 : 2명

-현재 저금리 지속화로 자금운용에 어려움.

나) 장학기금 추가조성및 확충목표

-1차 목표: 35억원

-단위장학회 구성및 기금조성현황

• 단위장학회:

시와공 단위장학회외 19 1,710,540천원

이양공문중 외 4 89,222천원

중앙및 각시도 1,058,428천원

합계 2,858,190천원

-35억 달성 기념비 수립

-문중및 지역단위별 개인별 참여독려

-단위장학회 결성 독려

4. 종사 발전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한 (淸韓) 연구회 조직구성

- 안내 팸플렛 제작및 비치

청주 한문의 유래 본관 시조 가문을 빛낸 인물 유적등

- 종보편집시 시조 중시조에 관한 유사, 유적소개 문중별 게재원고 접수.

- 종친회 조직 확충 -여성종친회 · 해외종친회.

2015년 제1차 諮問會議

2015년 6월 30일 · 중앙종친회 회의실

지난 6월 30일 11시 중앙종친회 會議室에서 제1차 諮問會議를 개최하였다. 宗親會 종인 상무의 사회로 열린 諮問會議는 성섭 副會長의 참석자 소개에 이어 中央宗親會 基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 영광에서 참석하신 희천 고 문님을 비롯한 여러 元老들에게 감사드리고,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이나 송구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종사운영 방향을 深思熟考하며 보냈으며卓越한 원로 고문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하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희천 고문은 축사를 통해 “基虎 회장은 오랜 公職生活를 통해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淸州韓氏의 결속을 다지고 자연스럽게 일을 잘하시도록 도와 주자”고 인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소회를 披瀝했다.회의 도중

갑수 전회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宗親會 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임중 마무리 못한 7교 족보를 발행했으면 좋겠다고 인사하며 이 번 족보발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되어 잘 발행되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종인상무의 經過報告에 이어 부의사항으로 가)중앙종친회 주요 현안과 나)제 7교 대동 족보 編纂事業다)(재) 청한장학회 현황 라)종사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여러 가지 意見을 나누었으며, 기호회장은 청한연구회를 별도 설립하여 세계사차 문제등을 연구하게하고, 임원수첩 제작과 始祖府君의 팜플렛 부로서제작을 통한 청주한문의 위상제고 및 종친회 女性副會長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며 12시40분경 회의를 마무리하고 午餐을 함께한 후 諮問會議를 마무리 했다.



사진 왼쪽 삼재 관리위원회 希天 고문, 오른쪽 基虎 회장

2000년의 古都 益山



길수 (서원군파 회장)

지금 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백제 시대 유적인 왕궁 터와 미륵사 터 일원이 2015년 7월 4일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마한시대에 54개국 중의 하나인 乾馬國이 금마에 세워졌는데 백제시대 온조왕이 마한을 병합한 후 金馬渚(금마저)라는 지명으로 불렸다. 고려 제28대 충혜왕 5년에는 益州로 승격하였고 성종 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강남도 금마군이라 칭하였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 익산군으로 개편하여 1911년 8월 익산군청 소재지가 금마면에서 남일면으로 이전되었다. 1914년 4월 1일 익산군, 용안군, 여산군, 함열군을 익산군으로 통합하였다. 익산군 남일면과 동일면이 익산면으로 통합되어 익산면 裡里에 군 치소가 있었다.

왕궁리는 왕궁 터와 왕궁 5층 석탑이 있어 사적 제408호로 지정된 유적지이다.

유적전시관은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왕궁리 유적지 남쪽에 설립된 전시관으로 2008년에 개관하였다.

연면적 2,250㎡의 유적전시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영상실 등의 전시시설이 갖춰져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백제 왕궁 유적, 백제 건물, 왕궁의 생활상, 왕궁에서 사찰로의 변화과정으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또한 공방에서 생산된 금 유리 세공품과 왕궁 지붕의 연꽃무늬 수막새, 首府라고 찍힌 기와, 토기와 도가니 외에 왕궁화장실에서 휴지대용으로 사용했던 뒤처리용 나무막대 등이 전시되어 있다.

왕궁리 5층 석탑은 국보 제289호로 높이 약 850cm이다.

이 탑은 1층 기단에 5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로 기단은 지대석 위에 하대석을 올려놓은 단층 구조이다. 현재 露盤(노반) · 覆鉢(복발) · 仰花(양화) · 寶輪(보륜) 등이 잘 남아 있다. 이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백제계 석탑의 전통을 반영한 고려 초기의 석탑으로 추정하고 있다.

1965년 12월 탑을 해체, 수리할 때 1층 옥개석 중앙과 기단부의 심조석 위에 있는 品字形 舍利孔에서 사리 장엄구를 비롯해 금제 금강경경판 19매, 청동불입상, 청동요령 등이 발견되었는데 국보 제123호인 사리 장엄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미륵산 밑에는 미륵사터가 있다. 미륵산의 남쪽 자락 너른 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터인 미륵사터가 있다. 이 절터에는 국보 제11호인 서석탑과 1993년에 복원된 동석탑, 보물 제236호인 당간지주 두 기, 목탑 터, 금당 터 세 곳, 회랑과 강당과 승방의 자취, 그리고 남문과 중문의 흔적이 남아 있다. 또 석등 지붕

돌, 연꽃잎이 새겨진 석등 받침, 그리고 원래의 용도를 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석재들이 많이 있다.

彌勒寺는 백제 무왕 때 왕비의 발원으로 지어진 사찰인데 조선 중엽에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절터만 남아 있어 사적 제150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보인 이 석탑은 백제 석탑의 최초형식이라고 하는데 여러 면에서 한국석탑의 시원점이라 할 수 있다. 철거하기 전 남아 있던 탑의 높이는 14.2m로 원래는 7층 내지 9층이었다고 추정되는 한국 최대의 석탑이다. 이 석탑은 목조 건물이 석재로 전환하는 백제의 목탑 모습을 잘 보여주는 탑으로 해체작업 중에 금제사리 봉안기가 나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2009년 1월 14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 정비하다가 心柱 위쪽 중앙의 사리공에서 금제 사리호, 금제사리 봉안기 등 사리장엄을 발견하였다.

작은 병인 금제 사리호를 X선으로 내부를 투시한 결과 내외함의 2중 구조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리호 표면의 다양한 문양과 세공기법은 백제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금제 사리 봉안기는 가로 15.5cm, 세로 10.5cm 넓이의 금판에 음각하고 붉은 칠을 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여기에는 백제 왕후가 재산을 희사해 가람을 창건하고 기해년(639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미륵사의 창건 목적과 施主, 석탑의 건립연대를 정확히 밝힘으로

써 귀중한 금석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금제 봉안기에는 시주자인 왕후가 백제 8대 귀족 중 하나인 沙宅씨의 딸로 기록돼 있어 선화공주가 미륵사지를 조성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차이가 있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았다. 선화공주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 무왕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에 가던 도중에 못가운데에서 미륵 삼존이 솟아올라오는 것을 보고 사자사에 가서 지명법사에게 절을 세워줄 것을 부탁하니 법사가 신통력으로 미륵사 터를 매우고 큰 절을 세웠으니 미륵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륵산 중턱에 있는 사자사에 가려면 튼튼한 석성이 보이는데 이것이 기준성이다.

2010, 11. 익산시장이 제작한 [재미있는 익산 이야기 2]의 <미륵산성과 기준왕 이야기> 편에 마한의 건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고조선(기자조선) 마지막 왕인 준왕이 연나라에서 쫓겨 온 위만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여 이들을 받아드렸더니 위만이 배신을 하였기 준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배로 서해를 건너 도착한 곳이 지금의 금마였다. 이곳 뒤에는 미륵산이 있고 앞에는 만경강, 옆에는 금강이 있어 방어하기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넓은 들이 있어 넉넉한 천혜의 요지인 이곳에 BC194년에 마한을 세운 준왕은 무강왕이라 칭했다. 마한은 이후 7대 원왕이 세분의 아들을 두었는데 鮮于씨 韓씨 奇씨로 분성이 되었기에 지금까지 이 3성이 합동으로 무강왕 대제를 모시는데 일명 익산 쌍릉이라 부르기도 한다.

35억 장학기금 조성에 전종원의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장학기금 추가조성 약정 및 납입협황 (우측 도표 참조)

청주한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이자
국가의栋梁(棟樑)으로 육성하는 일

※ 장학기금 출연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25-0015-377

예금주 (재)청한장학회

※ 장학기금 출연금 납입 방법

◎계좌송금 : 국민은행 009-25-0015-377.

◎지로송금 : 무 정액 지로용지 이용 (종보 첨부)
청한장학회 기금납입용

◎방문납입 : 중앙종친회 사무실 방문 및 납입

장학기금 추가조성 약정 및 납입현황

대상기간 : 2014. 6월 1일 ~ 2015. 6월 30일

(금액단위:천원)

문종 및 단체	대표	추가약정	기 납입		
			'14.6~'12월	'15.1~6월	계
시외공단위장학회	양명	35,000	35,670		35,670
국산공	길수	30,000	10,000	20,000	30,000
광천공	추태	50,000	50,000		50,000
판관공	기인	15,000		15,000	15,000
이원공	준석	16,500	16,500		16,500
청파공	상필	13,000	13,000	2,000	15,000
상언공	택수	15,000			
신규 단위장학회	성용	50,000	8,000		8,000
신규	성용	50,000			
신규	광전	50,000			
신규	일환	50,000			
신규	장도	50,000			
삼재관리위원회	동석	100,000		30,000	30,000
장도공 (도장동)	삼석	50,000			
검교참판공문중	영수	50,000			
참의공문중		50,000			
판서공문중	상영	50,000			
정혜공문중	추태	10,000	8,200		8,200
부산시 (상훈공통합)	동경	12,000			
소계		746,500	141,370	67,000	208,370
대구경북단위장학회	희섭			21,000	21,000
세마공	효동		14,200	600	14,800
감사공	강			13,000	13,000
몽계공문중	석관			10,000	10,000
한인단위장학회	기천		6,820	3,000	9,820
계		746,500	162,390	114,600	276,990
각 광역시도			16,800	80,510	97,310
합계			179,190	195,110	374,300

* 15년 6월 30일 현재;추가약정금액 746백만원 대비 납입 208백만원 538백만원 미납

특별기고

서울 · 수도권청장년회 창립 10주년 기념

천하 제일비경 장가계로 친목수련여행



장가계 천문산 등반 전 기념촬영

人生不到 張家界, 百歲豈能 稱老翁!
영화 아바타의 배경 모티브가 된 곳...

서울 · 수도권청장년회(회장 삼랑)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5일부터 30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으로 천하 제일비경을 자랑하는 중국 장가계 지역으로 친목도모와 결속을 위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인천공항 출발 3시간 30분정도 운항 후 12시 경 장사공항에 도착하였다. 장사는 후난성의 성도이자 중국제일의 곡창지대로 마오쩌둥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산수로 유명한 장

가계의 길목이다.

최대 인원 4천명 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아시아 최대의 음식점 서호루에서 맛본 현지식은 향이 진하게 느껴진다. 궁궐 같은 큰 규모와 웅장함에 탄성이 나온다.

점심식사 후 찾은 열사공원, 1951년 인민해방 사업에 헌신한 선열들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장사시에서 가장 큰 공원답게 전동열차를 타고 호숫가를 돌아 한 바퀴 둘러보는데도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창사)활동 구지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투사의



창사임시정부청사 김구선생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김구 기념관을 찾았다.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비밀활동을 하기위해서 찾기 어려운 골목에 거점을 정하였다고 하나 건물미관 등 제반여건이 다소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느낌이 든다. 더 큰 관심 속에 더욱 선양,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방명을 한 후 성금 10만원을 기탁하였다.

이후 버스로 4시간가량을 달려 장가계에 도착하였다. 중국에서 4시간 거리는 옆 동네라 하는데 남한 면적의 약 100배정도가 된다는 어느 정도 공간은 간다. 중국에서는 운전은 하려면 최

소 3개 대는 나와야 한다는데... 빵빵대, 들이대, 끼어대...

장가계는 중국 남부 호남성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유방을 도와 한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인 장량이 토사구팽 될까 두려워 유방을 피해 산속 깊은 곳으로 칩거해서 살았던 곳으로 장량의 성을 따서 장가계라 부른다 한다. 또한 양씨성을 따서 지은 양가계, 원씨성의 원가계가 있다.

수 억 년 전에는 바다였는데 지각변동으로 인해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8면으로 이어 집니다〉

忠靖公誕辰 제461주년 祭禮奉行 및 定期總會開催



충정공파종회(회장 상근)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1시에 안산시 사사동 충정공재실에서 40여명의 종현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정공탄신 제461주년 봉제사를, 집례에는 지도위원 춘희·조현관에 상근회장·아현관에 상필고문·종현관에 상호부회장·축관에 상천상임고문으로 하여 엄숙히 봉행하였다. 정기총회는 사회자 상길총무가 開會宣言을 하고 國民儀禮는 생략하고 조상에 대한 묵념으로 대신했다. 이어서 상근회장은 “농사철이라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종원여러분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씀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먼저 총회를 개최하고 탄신제를 봉행하자고 했다.

관리사 신축에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종원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결산및 예산안을 상정



▲충정공파종회(회장 상근)는 5월21일 안산시 사사동 충정공재실에서 충정공 시향 모듬
◀충정공(諱·응인) 영정

하여 2014-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5-201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附議案件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 충정공(忠靖公, 應寅)의 아호는 백拙齋(百拙齋)로서 (명종9년 - 광해6년) 선조때의 문신이요, 원훈으로 23세에 생원, 진사양시(보통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알성문과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거쳐 팔도순찰사 6조판서등을 지냈으며 급기야 1606년 10월에 右議政 반열에 올랐다. 또한 중국을 4회나 다녀왔는데, 1584년 30세의 나이로 주청사 서장관으로 참례하여 宗系辯誣를 바로잡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

종계변무(宗系辯誣)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훈을 적은 황명조훈과 명나라의 헌법인 대명회전에 태조 이성계의 부친을 고려말 권신인 이인임으로 잘못 기록한 사실

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선배들이 200여년동안 수십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믿지않고 되돌려 보내는 수난을 겪다가 1584년 주청사 서장관으로 가서 충정공이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설득시켜 200여년만에 깨끗이 해결하신 淸州韓門의 자랑스러운 선조이다.

◆ 충정공이 계사년(1593년) 모친상을 당했을 때 기복(起復)하게 한 것에 대한 상소 (癸巳丁憂時起復疏)가 워낙이 명문이고孝에대해 돌이켜보는 뜻으로 그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자

삼가아웁니다.신은 평소예 용렬하고 재주가 없는데도 분수에 넘게 재상의 반열에 끼어 어렵고 위태할 때에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건만 조금도 보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공가(公家)에 쌓이고 화가 사친(私親)에게 까지 미쳤습니다.상중(喪中)에 있는 몸으로 죽을 때가 임박하였는데 지난달

26일에“지금 경을 청평군(淸平君)으로 삼으니 속히 올라오라”는 교지를 받들었으니 명을 받고나서 정신이 아득하였습니다. (중략)

거듭 생각건대 삼년상이란 성인이 만들어 놓은 합당한 제도로서 어진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를 구분하지 않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통행되는 것이니 이보다 중요한 人倫은 없으며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두 번 있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으로서 정성을 다하려는 다짐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부모님의 罔極한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유한한 삼년상을 또 행할 수 없다면 종신토록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될 뿐 아니라 천지간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니 孝道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교화가 이로인해 누가될까 두렵습니다. 신은 홀로되신 어머니를 모신 지 8년이 되었는데 살아생전에 봉양을 극진하게 하지 못하였고 돌아가서는 예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무덤의 흙이 아직 마르지 않고 소상(小祥)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신은 비록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제 자신은 아주 잘 압니다.어찌 감히 눈물을 흘리며 상중에서 나와 머리를 묶고 조정에 달려가서 영화를 탐낸다는 오명을 스스로 취하고 성스러운 조정에 수치를 거듭 끼치겠습니까.(중략)

엎드려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저의 어슬픈 정성을 곡진히 살피시어 내리신 명령을 빨리 거두심으로서 상제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슬픈 심정에 차마 결단하고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한 죄에 빠졌습니다.신은 애절하게 기원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웁니다. (글· 상길 총무)

文靖公下 兵使公(範錫)파 후손들 선대조 탐방



문정공하 병사공파 후손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관광버스 4대를 전세내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번지 시조 위양공 묘소참배및 2·3·4·5세조 설단 참배및 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장

리 743번지 예빈경공 광윤 묘소 참배와 경기도 성남 울동공원에 있는 14세조 문정공 계희 묘소를 참배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진주를 중심으로 부산 대구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는 병사공 종중원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140여명이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중시조 문정공 계희 선조님 참배시는 동역 문경공과 회장이 총무 범구와 우중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시어 참석 종원들이 찬사가 이어졌다. 탐방중 흥성 읍내성 관아를 보는중에 응필 선조님이 성을 축조하고 관아를 재건했다는 안내문을 보고 종원들은 모두 감격하며 자랑스런 조상님을 생각하며 자긍심을 가졌다.

◆兵使公 範錫; 시조하 22세 범석은 조선 현종 임자(1672년) 진주 동쪽 정수리 집에서 태어났다.자(字)는 성뢰이다.나면서부터 용모가 우뚝하고 목소리가 컸고, 특이한 풍채가 있었다.24세 때 별시 무과에 급제한 후 50년동안사

직(仕籍)에 있으면서 내직은 주로 오위도총부, 훈련도감, 금위영등에서 사환했고, 외직으로는 7개 고을의 고을원,6도의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참고로 경

상대학교 남명학 연구소에서 ‘병사공 한범석의 생애와 활동’ (사진참조)이라는 귀한 책이 발간되어 소개하니 일독을 권한다.



문정공하 병사공파 후손들의 시조묘소 탐방 후 기념촬영

개인정보비 (5~6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이 름	금 액
석두(서울 동대문구)	200	두경(전남 나주시)	20
근준 이사(서울 강서구)	100	만희 이사(서울 금천구)	20
기권(서울 성동구)	100	명교(경기 용인시)	20
정해(서울 서대문구)	100	병진(전북 남원시)	20
종원 이사(경기 김포시)	100	복원(서울 영등포구)	2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	상근(서울 강남구)	20
상백(서울 동대문구)	50	상덕(서울 관악구)	20
상옥 운영위원(고창군 회장)	50	상락 이사(서울 동작구)	20
영상(경기 양평군)	50	상철(경기 양주시)	20
태교(충남 서산시)	50	성수(서울 광진구)	20
현택(서울 노원구)	50	승옥(광주 북구)	20
애심(서울 서초구)	40	양섭(경기 남양주시)	20
동희(경남 진주시)	30	영수(광주 서구)	20
상교(경남 양산시)	30	용희(충남 예산군)	20
상모(전남 구례군)	30	원석(서울 구로구)	20
석우 운영위원(용인시 회장)	30	유식(경기 김포시)	20
선우(서울 송파구)	30	윤수 이사(서울 송파구)	20
용준(서울 동대문구)	30	이규(전북 전주시)	20
종천(경기 평택시)	30	인우(충남 당진시)	20
진우(경남 양산시)	30	중섭(서울 영등포구)	20
호일(서울 양천구)	30	찬희(서울 종로구)	20
갑준(서울 성북구)	20	창섭 자문위원(인천강화군)	20
경남(부산 서구)	20	태문(경기 수원시)	20
공희(경기 용인시)	20	화교 이사(경기 부천시)	20
균선(대전 서구)	20	홍수(충남 서천군)	20
남희(충남 청양군)	20	명규(경기 고양시)	10
대삼(제주 제주시)	20		
합 계			1,890

운영회비 (5~6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기호 회장(중앙회장)	2,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
기일 부회장(현령공파회장)	1,000
용진 부회장(이양공파회장)	1,000
동안 부회장(침판공파회장)	1,000
동석 부회장(삼재관리위원회 회장)	1,000
영수 부회장(검교참판공파회장)	1,000
양명 상임고문	500
상홍 부회장(경기 용인시)	500
상옥 부회장(충남도 회장)	500
장훈 부회장(충북도 회장)	500
희천 고문(전남 영광군)	200
철호 운영위원(영광군 회장)	200
상옥 운영위원(고창군 회장)	200
동협 자문위원(경기 평택시)	200
창섭 자문위원(인천강화군)	200
상기 자문위원(인천 서구)	200
만춘 이사(강원 강릉시)	100
윤수 이사(서울 송파구)	100
성우 이사(경기 연천군)	100
종원 이사(경기 김포시)	100
승남 이사(광주 북구)	100
동권 이사(전남 영광군)	100
용암 이사(전남 목포시)	100
영옥 이사(광주 광산구)	100
승주 이사(전남 영광군)	100
철현 이사(전남 영광군)	100
문수 이사(전남 영광군)	100
강석 이사(전남 영광군)	100
연수 이사(전남 영광군)	100
재운 이사(광주 북구)	100
근준 이사(서울 강서구)	100
성옥 이사(서울 강북구)	100

이 름	금 액
태섭 이사(부산 사상구)	100
정석 이사(하다리종친회장)	100
영학 이사(하다리종친회)	100
윤석 이사(하다리종친회)	100
합 계	13,200

장학기금납부 내역 (5~6월) 단위 : 천원			
고유번호	이 름	금 액	누 계
106	청파공단위장학회(상필)	2,000	52,000
2163	진위경기 용인시)	1,500	1,500
263	홍석강원 원주시)	600	1,064
808	하다리종친회	500	5,300
1698	석두(서울 동대문구)	200	1,050
2100	정옥대전 대덕구)	200	300
139	만춘강원 강릉시)	100	1,450
2161	규영대전 동구)	100	100
982	용준(서울 동대문구)	50	320
1978	동옥(충남 계룡시) 대전	50	200
2162	장현대전 동구)	50	50
2165	정해(서울 서대문구)	30	3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	600
1730	선위강원 강릉시)	10	430
2011	경호전북 임실군)	20	90
1968	명규경기 고양시)	10	50
2164	양섭(경기 남양주시)	10	10
합 계		5,450	

단체정보비 (5~6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삼재관리위원회	500
인천시종친회	500
하다리종친회	200
송탄종친회(수동)	100
합 계	1,300

일반찬조헌성금 (5~6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삼재관리위원회(동석)	300
하다리종친회	200
강 부회장(경기 안산시)	100
관악구종친회(철수)	100
사속공추모회(준석)	100
희천 고문(전남 영광군)	100
범석 이사(서울 구로구)	50
상용 이사(서울 금천구)	50
상일 이사(서울 노원구)	50
성섭 부회장(경기 남양주시)	50
성용 자문위원(경기 광주시)	50
우선 이사(서울 서초구)	50
윤수 이사(서울 송파구)	20
광열(인천)	20
합 계	1,240

청 · 한 · 각 · 심 · 터

持盈守謙(지영수겸)

가득 참을 유지하드라도, 겸손의 뜻을 잊지 않음

빈천은 근검을 낳고 근검은 부귀를 낳는다. 부귀는 교만과 사치를 낳고 교만과 사치는 음란함을 낳으며 음란함은 빈천을 낳는다. 여섯가지 길이 쳄바퀴처럼 돈다. (貧賤生勤儉 勤儉生富貴 富貴生驕奢 驕奢生淫佚 淫佚生貧賤 六道輪回) 청나라 진홍모(陳弘謨)가 엮은 오종유규(五種類規)에 나오는 말이다.

빈천에서 근검으로 노력한 결과 부귀를 얻었다. 부귀를 얻고 눈에 보이는게 없어 교만과 사치를 일삼았다. 교만과 사치에 취해 방탕에 빠지니 잠깐만에 다시 빈천의 자리로 돌아와 있다. 한때의 부귀는 꿈이었고 앞뒤로 빠져린 빈천만 남았다.

당나라때 유빈(劉毗)이 자손에게 남긴 경계다. “훌륭한 가문은 조상의 충효와 근검에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자손의 둔하고 경솔하고 사치하고 오만함에 말미암아 엮어지지 않음이 없다. 세우기가 어려운 것은 하늘을 오르는 것 같고 뒤집혀 실추하기 쉽기는 터럭이 화롯불에 타는 것과 한가지다. (名門右族 莫不由祖先忠孝勤儉 以成立之 莫不由子孫頹率奢侈 以覆墜之 成立至難 如升天 覆墜立易 如燎毛) 신당서(新唐書)에 나온다.

명나라때 육수성(陸樹聲)이 청서필담(淸書筆談)에서 한 말은 이렇다. 부(富)는 원망의 곳집이요 귀(貴)는 위태로움의 기틀이다. 이는 부귀하면서도 도리에 어긋나게 처신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만약 영리에 처해서도 거기에만 골몰하지 않고 가득 찬 상태에 있으나 그칠 줄 알아 가득함을 유지하면서 겸손을 지킨다면 원망의 곳집이니 위태로움의 기틀이니 하는 말이 어찌 있겠는가(富者怨之對 貴子危之機 此焉富貴而處之不以其道者言之也 乃若處營利而不專 履盛滿而知止 持盈守謙 何怨對危 机之有載) 지금 내가 누리는 부귀는 다른 사람의 원망과 한 속에서 나왔다. 발밑에는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지영수겸(持盈守謙) 가득참을 유지 하더라도 겸손의 뜻을 잊지 않아야만 원망도 위기도 없다. 사람이 이 간단한 이치를 자꾸 잊으니 멀쩡히 잘 가는 비행기를 돌려세워 선대를 불명예스럽게하고 자기 몸도 망치는 것이다. - 출처 : 어느 고전문학에서

2015년 인천종친회 정기총회



2015년 인천종친회(회장 기천)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수림공원 별관에서 종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중앙종친회 성섭 부회장·안상수·윤상현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정무특보 조용균·김기인 동구의장의 4명의 인천 전의장들과·국인 예비역 중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기천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씨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몇몇하게 살아왔다고 힘주어 말하며, 회장 임기

동안 숨어있는 일가들을 찾아내서 시조세향 참사와 각종행사 회의에 참여시키는등 자랑스럽게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종친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인천종친회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날 경노장수상에 봉회,효자효부상은 명교, 최영숙,공로패는 창섭 전회장 감사패는 한인산악회 총무종연 일가에게 수여했고,자문위원 윤영위원 부사장 이사들에게도 위촉장을 전수했다. 1부 행사후 2부행사에서는 결산안과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키고 노래자랑등 여흥시간을 갖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부산종친회 動靜



청주한씨 부산종친회는 宗親會의活性化와 韓門을 알리고 自矜心을 갖게할수있는 사업으로 일가분들의 자제 결혼시 宗親會長의 無料主禮서주기운동을 계속하여 주변의 좋은 반응을 듣고있다. 동경 부산宗親會長(사진·가운데)은 “봉사를 통해 미약하나마 일가

들간의 疏通과 和合의 장도 될수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여러일가들의 關心과 參與를 당부했다. 지난 14일 日曜日에는 일가 자제의 주례 말씀중 宗訓에 담긴 뜻과 연계하여 인생을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敎訓이 되는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일가들의 복지와 실현가능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中央宗親會 인터넷축보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이해하는 일가분들이 늘어서 보람을 느끼고, 일가들 뿌리찾기도 계속 전개하여 無籍인 일가들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며 종친 일가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글·종수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울산광역시 종친회 정기총회



지난 5월 19일 (화) 오후 6시 30분 울산광역시 남구청앞 필리제 컨벤션에서 청주한씨 울산광역시 종친회가 10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 총회겸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된 만우 일가는 인사말을 통해“메르스등으로 사회

가 어려운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종친회장으로서 솔선하여 종친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신임 만우 회장은 변호사로서 울산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고,현재는 법무법인 문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인 중견 법조인이다.

청운회 월례회(제108회) 겸 회장 이·취임식



지난 5월29일(금) 오전11시 서울시 종로3가 국일관1층 이대감고깃집에서 청주한씨 청운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월례회(제108회)겸 회장이·취임식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삼랑, 성우, 만구 일가를 청운회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상용회장은 就任辭를 통하여 “清州韓門의 사랑방에 無窮한 발전으로 거

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清州韓氏 청운회는 清州韓氏 일가는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회의는 격월제로 하되 기수월(홀수달)의 마지막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거행한다.(글·이덕충무)

☎ 연락처:상용회장 010-5352-4061·이덕충무 010-6219-4002

西情會 2015년 定期總會



清州韓氏 서정회 모임이 지난 6월 10일 종로3가 관수동 은행나무집에서 개최되었다. 서원군 吉洙회장·질경공 辛錫회장·충정공 相根회장 등 15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그중 女性회원이 3명이나 參席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정회 永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로 인해 全國이 騷亂스러워 회의를 取消하려고 생각도 했으나 여러

가지 狀況 때문에 부득이 개최케 됨을 참석자들에게 諒解를 구하고 이러한 惡條件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하며 서정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종사문제 親睦圖 謀등 和氣애애한 정담을 나눈 후 다음 만남 것을 기약하며 2시 30분 폐회했다.(글·서정회장영수)

臨時總會 開催公告

理事會 決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清州韓氏 참판공(휘 윤창)파 臨時總會를 개최하오니 많은 參席을 바랍니다 .

다 음

- 1.日時 : 2015년 8월 22일 (토) 오전 11시
- 2.場所 : 이대감 고깃집
(종로구 수표로 96·국일관 1층)
- 3.主要案件 : 가)任員選出에 관한건
나)定款 改正
다)其他討議 사항

2015년 7월 15일

清州韓氏 참판공(諱 胤昌)파 宗中會
會 長 韓 成 圭

모범 종인 소개 : 효는 만행의 근본



相根 一家는 始祖下 30세손 (文靖公 하 영흥공)으로 시골에서 성장하여 농사를 주업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오던 중 선친께서 作故하신후 生活苦는 극에 달했음에도 홀로되신 어머니를 60여년 至極精誠으로 모시어 100세까지 장수하게한 요즈음 보기도문 모범 종인이어서 紹介한다.

3대가 한 집에 살며 長子로서 남동생과 여동생을 부모를 대신하여 훌륭하게 성장시켜 일가를 이루게 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 6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켜 훌륭한 社會人으로 성장게하여 주변의 찬사가 자자하다.

이웃주민들에게도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여 형제간에도 우애가 돈독하

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서도 솔선수범하여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모범노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바도 있다.

부창부수로 부인 김 옥순여사도 구청으로부터 장한 어머니 상을, 청주한씨 중앙종친회로부터도 孝行孝婦상을 2006년에는 國務總理로부터 효행효부상을 받은 훌륭한 분이다. 相根 일가는 지난 5월 8일 복지관에서 대전광역시 주최하는 어버이날 행사에서 敬老孝行 실천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寄與한 공로로 大統領이 주는 國民褒章을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수여받아 주변으로부터 아낌없는 讚辭와 稱頌을 들었다.

2015 淸韓山岳會 定期總會 및 산행

名譽會長：基虎 中央宗親會長

會長：추태 정혜공과 회장



淸韓山岳會 정기총회및 산행이 지난 5월 31일 춘천시 서면소재 뒷골가든에서 40여명의 회원과 춘천종친회 명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4명 등 최근에 볼 수없는 열기로 열렸다.

8시경 中央宗親會를 출발한 버스는 10시 30분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상남 산행부장의 시골집에서 간단한 음료를 대접받고 약 2시간 계획으로 서면소재 저수지를 트래킹하고 다시 식사장소인 뒷골가든에서 춘천종친회가 마련한 특별한 메뉴로 식사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명수 춘천종친회 회장

은 인사말을 통해 “춘천을 방문해 주어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을 가져가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방문도 환영한다”며 인사했다. 식사 후에 定期總會에서는 종인 상무의 사회로 성섭부회장의 인사와 경과보고 감사보고, 2014년도 결산(안)과 회칙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회칙개정에 따라 基虎 中央宗親會長을 名譽會長으로, 추태 정혜공과 회장을 山岳會長으로, 삼랑 청장년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감사에는 철수중앙종친회 감사와 상일씨를 선출하고 2015년 淸韓山岳會 총회를 마쳤다.

4면에서 이어집니다

「십리화랑, 원가계, 양가계」

십리화랑은 총 5km의 협곡으로 협곡 양옆으로 펼쳐지는 기암괴석의 풍경이 산수화처럼 아름답고 그 길이가 10리정도 이어진다고 하여 십리화랑이라고 부른다 한다. 약 30분정도 모노레일을 타고 협곡을 달리는 동안 기막힌 자연의 조화로 이루어진 멋진 절경과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사가 연발이다. 등에 약초를 짊어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형상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보이고, 아기를 안고 있는 첫째, 업고 있는 둘째, 임신한 셋째가 나란히 한 세자매봉은 그 의미를 담고 보니 그럴듯하게 보인다.

원가계, 양가계를 관광하기위해 찾은 335m 높이의 백룡엘리베이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관광전용 엘리베이터로서 반은 바위 속에 잠겨있고 반은 밖으로 나와 있다.

1초당 3m의 속도로 약 2분이 소요되는 시간동안이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비경이 일품이다. 기암봉우리가 수림을 이룬듯하여 사람의 혼을 빼 놓을 듯 아름다운 곳이라는 미혼대, 영화 아바타 배경의 모티브가 된 곳, 두 개의 바위를 이어놓은 듯한 자연의 다리 천하제일교 등 원가계의 빼어난 절경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케이블카 창밖으로 또 다시 펼쳐지는 양가계의 비경 또한 대자연속 웅장한 바위 협곡 풍경이 마치 큰 폭의 산수화를 옮겨 놓은 듯하다.

한편 7월에는 계절적인 여건을 고려, 지난 7월 11일 서울 인근 일영유원지 계곡 가를 찾아 피서와 복달임을 겸한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격려와 큰 성원을 보내주심에 뜻 깊은 모임의 자리로 빛내주신 중앙종친회 갑수 명예 회장님을 비롯하여 경수회장, 준석회장, 길수회장, 강회장, 성섭부회장, 상일감사 등 원로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가계 여행 관련기사는 238호에 2부가 계속 게재됩니다’

(글·종인 상무)

원교(元敎)일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초대 사진전



왼쪽으로부터 元敎 작가·星燮 부회장·基虎 中央宗親會長 및 일가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초대 사진전에 추천작가로 초대받은 원교일가의 사진작품이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5 경희궁에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출품작품명은 “구름따라 물길따라”이며 중앙종친회 基虎 회장을 비롯한 성섭 부회장·창하 서원군 총무·鍾仁 상무등 참석 축하했다.

바로잡습니다

종보 236호 8면 하단에 광고안내중 한 순기 치과원장의 명함게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종보제작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편집자)

중앙종친회 사칭에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종친회를 사칭, 책자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02)720-6370~1로 중앙종친회에 확인하십시오